

# 역사를 뚫고 솟아난 귀수성의 세계

- 신동엽의 『금강』 읽기 -

정 명 중\*

- I. 들어가며
- II. 인류문명에 대한 묵시록적 전망
- III. 내파(內破) 또는 정지(停止)의 상상력
- IV. 나오며

## 국문초록

이 글은 신동엽의 장편서사시 『금강』(1967)을 그의 시론인 「시인정신론」과의 연관 속에서 독해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인정신론」을 시론이기보다는 묵시록(Apocalypse)적 전망을 함축한 문명론의 형태로 읽었다. 이어 그러한 묵시록적 전망 속에서 『금강』의 중심 주제인 갑오농민전쟁(1894)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탐색했다.

『금강』에서 갑오농민전쟁, 3·1운동, 4·19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유린으로 점철된 문명사의 내파와 정지를 환기하는 특이점과 같은 것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금강』이 역사에 대

---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교수 / [molecula@jnu.ac.kr](mailto:molecula@jnu.ac.kr)

한 낭만적 과거회귀의 이념이나 탈역사성의 관념과는 거리가 있음을 밝혔다.

◆ 주제어

---

신동엽, 시인정신론, 금강, 목시록, 농민전쟁

## I. 들어가며

이 글의 목적은 신동엽의 장편서사시 『금강』(1967)을 그의 시론인 「시인 정신론」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독해<sup>1)</sup>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시인 정신론」을 시론 그 자체로서보다는 묵시록(Apocalypse)적 전망을 함축한 문명론의 형태로 간주할 것이다. 이어 그러한 묵시록적 전망 속에서 『금강』의 중심 주제인 갑오농민전쟁(1894)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금강』에 대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주지하듯 이 작품이 서사시로서 장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sup>2)</sup>이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금강』의 서사성이나 서사구조의 특징을 밝히려는 연구들<sup>3)</sup>이 꾸준히 진행돼 왔다. 아울러 농민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모티프로 하지만 복합적인 작가의 의지에 따라 확장된 사회·역사적 관점이 『금강』을 관통<sup>4)</sup>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의 공동체주의나 유토피아 이념을 탐구

---

1) 물론 그의 시론과 『금강』을 상호연관 속에서 분석한 연구가 없지 않다. 예컨대 홍용희, 「귀수성과 동학혁명운동의 현재적 가능성-신동엽의 시론과 서사시 『금강』을 중심으로」(『한국시학연구』 제43호, 한국시학회, 2015.)가 있다. 이 연구는 「시인정신론」의 핵심적 관념을 주로 동학사상(종교이념)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피고 있다.

2) 김우창, 「신동엽의 『금강』에 대하여」, 『민족시인 신동엽』(구중서·강형철 편), 소명출판, 1999.

김주연, 「시에서의 참여 문제-신동엽의 『금강』을 중심으로」, 『민족시인 신동엽』(구중서·강형철 편), 소명출판, 1999.

3) 이영섭,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 연구-『금강』의 역사의식과 탈역사성」, 『현대문학의 연구』 5권, 한국문학연구학회, 1995.

김홍진, 「『금강』의 서사양식 수용과 서술기법」, 『한국문예창작』 제8권 제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09.

지현배, 「신동엽의 『금강』에 나타난 서사구조와 작가의식-동학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28권, 동학학회, 2013.

이나영, 「신동엽 서사시의 성취와 의의-『금강』의 서정성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74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4) 한상철, 「신동엽의 『금강』에 나타난 자연표상과 아나키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202쪽.

한 연구들<sup>5)</sup>도 꽤 있다.

한편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금강』을 분석한 연구들<sup>6)</sup>도 보인다. 그 외에 『금강』을 탈근대 담론의 지평에서 해석<sup>7)</sup>하거나 지역문학의 관점에서 작품이 지닌 장소성 문제를 거론<sup>8)</sup>하고 나아가 실용적 관점에서 작품에 접근<sup>9)</sup>한 연구 등도 있다.

유감스럽지만 『금강』의 서사시 부합 여부는 사실상 필자의 관심 밖이다. 따라서 이 작품이 지닌 서사성(혹은 서사구조)의 양상에 대해서도 크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신동엽이 자신의 작품을 서사시로 명명함으로써 실제로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 5) 임현준,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에 나타난 모성담론」, 『한국문화기술』 12권,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1.  
이혜미, 「『금강』의 에로스적 상상력 연구」, 『한국문화기술』 14권,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2. 김경복, 「신동엽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4집, 한국문화회, 2013.  
최도식, 「신동엽의 『금강』에 나타난 공동체 연구-동학농민운동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1권, 동학학회, 2016.  
손민달, 「사회생태학의 관점으로 본 신동엽의 시-『금강』을 중심으로」, 『문학과 환경』 제15권 제2호, 문학과환경학회, 2016.
- 6) 송병선, 「민중서사시의 미학과 침묵의 언어-『금강』과 『우리 모두의 노래』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9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03.  
이정석, 「한국문학과 재일조선인문학, 그 친연성과 거리-신동엽의 『금강』과 허남기의 『화승총의 노래』의 대비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41권, 비교문화학회, 2007.  
이미옥, 「신동엽과 장허의 ‘서사시’를 통한 ‘저항성’ 비교 연구-『금강』과 『태양과 그의 반사광선』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42집, 동북아문화연구소, 2015.  
박상민, 「박경리 『토지』와 신동엽 『금강』의 동학 담론」, 『동학학보』 44권, 동학학회, 2017.  
지현배, 「동학의 코드와 한국학적 가치-신동엽과 권정생 작품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8권, 동학학회, 2018.
- 7) 한상철, 「미적 근대의 복원-신동엽의 『금강』론」, 『문예시학』 10권, 문예시학회, 1999.  
박정근, 「신동엽 시에 나타난 ‘탈주’의 의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권 1호, 순천향대 인문학연구소, 2017.
- 8) 남기택, 「신동엽 시와 『금강』의 층위」, 『대학교양교육연구』 제2권 제1호, 배재대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17.
- 9) 강상대, 「서사시 『금강』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7호, 한국콘텐츠학회, 2006.

신동엽에 따르면 현대의 시란 과거 “씨족이나 부락공동체의 정신”을 담은 주문(呪文)의 형태를 방불케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정치·종교·예술의 종합”<sup>10)</sup>으로서 공동체를 대변하는 양식이어야 마땅하다. 결국 공동체의 삶을 감당하는 샤먼(shaman) 노릇이 시인의 숙명이고, 시란 세계와의 영적 교감과 공감을 실현하는 종합 미디어(media)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종합 미디어로서의 시를 신동엽은 서사시라 칭하고 있을 따름이다. 게다가 그의 「시인 정신론」은 파편화가 극에 달한 인류문명을 초극하려는 ‘종합에의 의지’로 충만한 글이다.

(…) 인류정신의 창문을 우주 밖으로 열어 두는 서사시는 인종의 가을철에 의하여 결실되어 남겨질 것이며 그 정신은 몇 만 년 다음 겨울의 대지 위에 이리저리 물려다니는 바람과 같이 우주지(宇宙知)의 정신, 리(理)의 정신, 물성(物性)의 정신으로 살아남을 것이다.<sup>11)</sup>

요컨대 인류의 정신적 지평을 광활한 우주의 공간으로 개방하고 나아가 세계의 본원적 진리를 매개하는 시의 형태가 바로 서사시이다. 이와 같은 시의 이상과 역할을 지향했던 신동엽이 자신의 작품이 서구적 전통의 서사시에 꼭 들어맞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필자는 『금강』의 공동체나 유토피아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체(socius)를 겨냥한 것인지, 또는 아나키즘과 같은 특정 사회정치이론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다. 다만 필자는 「시인 정신론」과 『금강』을 겹쳐 읽음으로써 갑오농민전쟁이 일제하 3·1운동, 이승만 독재하의 4·19혁명과 함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유린으로 점철된 문명사의 내파(內破) 또는 그 흐름(연속성)의 정지(停止)를 강렬하게 환기하는 특이점(사건)으로서 의미화되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강』이

10) 신동엽, 「60년대의 시단 분석도」,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사, 1985, 379쪽. 이후 국한문 혼용으로 된 신동엽의 글이나 작품을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기로 한다.

11) 신동엽, 「시인정신론」, 같은 책, 373쪽.

단순히 낭만적 과거회귀의 이념이나 탈역사성(무시간성)의 관념과 무관하다는 점이 자연스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인류문명에 대한 묵시록적 전망

신동엽의 시론 「시인정신론」을 분석하기 전에 조선왕조 말기, 바야흐로 농민전쟁의 불씨가 사방으로 타오르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금강』의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자.

봉건사회의 / 마음은 / 견잡을 수 없이 / 동요되기 시작했다. // 대구 팔공산  
예선 / 이름 모를 새들이 나타나 / 한 달 동안 / 하늘의 해와 달을 가리고 / 싸웠  
다. // 이상한 울음 우는 / 칼새가 나타나 / 양쪽 새 다 죽이고 판가름 냈다. / 땅  
에 떨어지는 / 새의 시체가 / 소나기 같았다. // 이상한 소문은 / 꼬리를 이었다.  
// 오대산 속예선 / 소나무에 꽃이 피었다. // 평안도 용강 / **우물 속예선 / 용대**  
**가리 같은 / 감정 꽃줄기가 두 개, / 관리나 양반이 가면 / 종적도 없어지고, //**  
수덕사에선 / 겨울인데 / 복숭아꽃이 만발했다.(강조-인용자)<sup>12)</sup>

나라 곳곳에서 수상쩍은 징후들과 초자연적 현상들이 창궐한다. 이상한 소문들이 꼬리를 문다. 조선사회는 그야말로 말기로 향해가는 불길한 상황에서 동요한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된 부분을 보자. 우물 속에서 용의 머리를 닮은 검은색 꽃줄기가 피어났지만 정작 관리나 양반 같은 지배계층이 다가서면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대목이다. 전형적인 묵시록적 진술이다. 그 본래적 의미에서 묵시록적 진리는 지배자가 아닌 피지배자들을 향하는 진리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원래 그리스어인 ‘묵시록(Apocalysis)’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파국이라거나 몰락 혹은 종말의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비밀을 드러냄 또는

---

12) 신동엽, 『금강』, 앞의 책, 194~195쪽.

계시의 의미였다고 한다. 따라서 목시록이라는 말에는 진리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존재하지만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목시록적 진리는 이성적 한계를 초월한 난해하고 위험스러운 것이다. 이는 그러한 진리가 궁극적으로 폄박받고 소외된 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sup>13)</sup>

주지하듯 「시인정신론」은 신동엽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참조점이다.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시인의 역할을 논한 평론이자 문명비판론이기도 하다.<sup>14)</sup> 해서 그의 시세계에 대해 “협동적 노동, 평등한 분배, 특권 없는 무정부 마을, 인간과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의식하는 문화—이러한 심상들은 좁은 의미의 정치적 비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 기여하는 것”<sup>15)</sup>이라는 평가도 이미 있었다. 한테 필자는 그의 시론에 문명 비판적 관점이 “배경으로 깔려”<sup>16)</sup> 있다는 저간의 평가와 결을 조금 달리할 것이다. 곧 문명비판의 맥락을 의도적으로 전경화(前景化)함으로써 「시인정신론」을 목시록적 전망을 함축한 문명론의 형태로 술질하고자 한다.

「시인정신론」에서 신동엽이 제시한 인류사(혹은 세계사)의 패러다임(삼분법)은 수십 년이 지나서도 꾸준히 회자될 만큼 유명하다. 물론 그 패러다임의 이론적·개념적 정합성이나 역사의식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신동엽식 인류사 패러다임이 지닌 논리적 성감이나 이론적 여백이 오히려 다양한 사유와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그는 인류사의 패러다임을 물의 상상력을 통해 다음처럼 묘사한다.

13) 이주동·장순란, 「현대독일문학의 경향과 특징」, 『서강인문논총』 제22집, 서강대 인문학연구소, 2007. 271쪽.의 내용을 갈무리함.

14) 김화선, 「탈주와 회구의 상상력-신동엽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9. 55쪽.

15) 김종철, 「신동엽론-민족·민중시와 도가적 상상력」, 『창작과 비평』 63호, 창작과비평사, 1989, 102쪽.

16) 오문석, 「신동엽의 시론 연구」, 『인문학연구』 48권,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4, 10쪽.

잔잔한 해변을 원수성세계(原數性世界)라 부르자 하면, 파도가 일어 공중에 솟구치는 물방울의 세계는 차수성세계(次數性世界)가 된다 하고, 다시 물결이 숨자 제자리로 쏘아져 돌아오는 물방울의 운명은 귀수성세계(歸數性世界)이고.<sup>17)</sup>

물의 상상력으로 제시된 패러다임은 이어 계절(인생)의 은유로 이어진다. 곧 우리는 인류의 봄(유년)에 해당하는 원수성의 세계를 떠나 인류의 여름(장년)인 차수성의 세계에, 그것도 한 세계의 종말을 재촉하는 끝자락에 혹은 대전환기의 임계점(critical point)에 도달해 있는 상태이다. 뒤이어 인류의 가을(노년), 곧 귀수성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이 귀수성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원수성의 세계로 향하면서 그 세계와 결국 포개진다.

우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신동엽은 “유사 이후의 문명의 역사 전체가 다름 아닌 인종계의 여름철 즉 차수성 세계의 연륜에 속한다.”<sup>18)</sup>라고 언급한다. 시론에서 그가 인류문명의 역사를 5천년이나 7천년 정도로 가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근대(현대)만을 따로 지목해서 차수성의 세계로 규정하려 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시인정신론」을 근대비판의 맥락이나 탈근대(혹은 반근대)의 지평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sup>19)</sup> 이는 신동엽의 다음 언급을 통해서도 금방 뒷받침된다.

황화기(黃河期)를 벗어나 중세, 근대, 현대에 걸친 인류의 노력은 이상한 괴물 같은 거대한 축대 위에 선업(先業)을 이어 받아가며 거의 맹목적 관습적 동작을 돌을 쌓아 올리는 일로 집중되어 오고 있다. 우리 시대의 문명은—과학적 발전, 정치이론의 진보, 언어수사학의 개화 등은 모두 이 축대 위에서 피어

---

17) 신동엽, 「시인정신론」, 앞의 책, 364쪽.

18) 같은 글, 364쪽.

19) 다음과 같은 언급이 특히 그렇다. “독창적인 시대구분법에 따라서 그는 근대(혹은 현대)를 가리켜서 차수성 세계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오문석, 앞의 논문, 13쪽.) “차수성의 세계에서 귀수성의 세계로의 이행 속에 이미 신동엽은 근대의 전도를 예비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적대적 이행 속에서 근대 극복의 의식이 배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김화선, 앞의 논문, 61쪽.)



났다. 이 축대는 그 체계 밑에서 일하고 있는 만인의 눈에 한편 구석에서 있는 한 그루 고목으로서가 아니라 세계 자체, 말하자면 절대적 전일자(全一者), 바로 그것으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유물(唯物)과 유리(唯理), 자연주의와 낭만주의, 실존과 이상 등 동일한 고목에 피어난 이들 버섯은 불행히도 자기들 스스로가 세계적 조화를 이루는 데 불가결한 절대적 성립자, 다시 말해서 뿌리를 달리하고 있는 자립적 나무들이라고 착각되어 왔던 것이다.

실은 광막한 대지 한구석에 피어난 고목 속에서 시험되고 있는 잡다한 벌레들의 코러스에 지나지 않았던 이들의 난립(亂立)이...<sup>20)</sup>

황화기란 고대 시대를 뜻하는 듯하다. 한데 중요한 것은 신동엽이 고대 이후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인류의 문명사적 여정이 “이상한 괴물 같은 거대한 축대” 위에서 형성된 ‘맹목과 관습’의 단순 누적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신동엽은 근대의 산물인 과학발전이나 정치이론의 진보조차도 각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고대·중세·근대 하는 식의 시대 구분조차 사실상 무의미하다. 따라서 역사적 진보와 발전의 파토스를 부르짖는 일은 기껏해야 “잡다한 벌레들의 코러스”일 뿐이다. 인류문명의 진보와 발전 관념에 대한 지독한 니힐리즘이 아닐 수 없다.

역사와 문명을 떠받치는 이 거대한 축대는 인류의 맹목과 관습을 자양분 삼아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이어오는 고목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대지 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이 고목을 신동엽은 ‘인류수(人類樹)’라 부른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인류문명을 이룰테면 드넓은 대지의 “한편에 서 있는 한 그루의 고목”과 같은 것으로 상대화하지 못하고, “세계 자체”로 절대화하거나 물신화(物神化) 해버렸을 때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세계에 정작 기생해서 살아가는 개체들이 자신들을 세계 형성의 필수불가결한 자립적인(혹은 자율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착각(환상)에 빠졌을 때이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신동엽의 다음 언급은 목시록으로 읽어도 전혀 어색하

20) 신동엽, 앞의 글, 363쪽.

지 않다.

거의 모든 인구가 조직되고 맹종되고 전통화된 차수성적 공중기구 속에서 생의 정신적 및 물질적 근거를 급여 받고 있다. 시야 가득히 준비하게 솜은 이러한 조직과 체계와 산봉우리들은 제각기 특유한 생리와 특유한 수단방법으로써 자체 생명의 이익을 확충시켜 가면서, 허약한公分母(公分母) 위에 뿌리박아 마치 부식 작용하는 곰팡이의 집단처럼 번식해 가고 있다. 하여 분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한정된 어머니 즉 일정한 대지로부터 양식을 빨아들이는 그들 공중기구는 기근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며 영양실조에 빠지게 될 것이며 중국에 가서는 생존경쟁의 광기성에 휘몰려 맹목적인 상쇄(相殺)으로써 불경기를 타개하려고 발악하고 발광하고 좌충우돌하기에 이를 것이다. (...) 형형색색의 이들 맹목기능자는 항상 동업자들끼리의 경쟁에서 도태될 위태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한 영업입지를 닦기 위하여 윈론 곰배팔이를 다시 더 사상(捨象)하고 바늘 끝만한 시점에다 전 역량을 집중하여 특수 특종한 기능을 뽑아 늘이는 일제로 기형적 분지(分枝)를 거듭하고 있다.(강조-인용자)<sup>21)</sup>

위의 인용문에서 우선 차수성적 ‘공중기구’란 표현에 주목해보자. 이는 차수성의 세계가, 곧 인류문명이 “인민이나 인생이란 이름의 구체현황”<sup>22)</sup>을 배제[사상(捨象)]함으로써 결국 “인생에의 구심력(求心力)을 상실한 채 천만개의 맹목기능자로 화하여 사방팔방 목적 없는 허공 속을 흩어져 달아나는”<sup>23)</sup> [분지(分枝)] 지경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말하자면 인류문명이 삶(대지)과 유리된 채 마치 공중부양 상태로 떠있다는 것이다. 신동엽이 인간들은 “대지에 소속된 생명일 것을 그만 두고 (...) 교활하고 극성스러운 어중편 존재자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등록되었다.”<sup>24)</sup> 라고 하거나, “문명인의 고향은 대지가 아니다. 그들의 출생은 허공 속에서

21) 같은 글, 367~368쪽.

22) 같은 글, 361쪽.

23) 같은 글, 362쪽.

24) 같은 글, 365쪽.

시종(始終)했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문명인 또는 대지에서 벗어난 인간들을 지배하는 감성이 바로 “불안, 부조리, 광기성”<sup>25)</sup>이다.

자양분과 에너지 공급원이었던 삶(대지)으로부터 분리된 인류문명의 종말은 이미 정해졌다. 중국에 가서 기근과 영양실조에 의해 고사될 수밖에 없다. 엔트로피(entropy) 상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인류문명의 성장과 발전을 추동했던 그 ‘분지’와 ‘사상’의 원리가 바로 문명을 그 안으로부터 붕괴시켜버리는 파괴의 원리라는 점이다.

발전의 파토스가 실은 파괴의 파토스라는 비극성 앞에서 그야말로 “만인이 만인에게 늑대(homo homini lupus)”인 홉스(T. Hobbes)적 자연 상태(state of nature)가 연출될 수밖에 없다. 즉 예견된 종말(엔트로피)을 향해 차수성 세계의 인류가 자신의 안전(security)을 담보하기 위해 “생존경쟁의 광기성에 휘말려 맹목적인 상쇄로써 불평기를 타개하려고 발악하고 발광하고 좌충우돌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배틀로얄(Battle Royale)<sup>26)</sup>적 상황이 펼쳐진다. 결국 위의 인용문은 인류의 광기 그리고 맹목적인 생존경쟁의 살풍경과 더불어 문명이 제로섬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묵시록적 전망을 강하게 환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새로운 우리의 이야기를 새로운 대지 위에 뿌리박고 새로운 우리의 생각을, 새로운 우리의 사상을, 새로운 우리의 수목을 가꿔가려 할 때 세상에 준비한 잡다한 삼림은, 그리고 생경한 낯선 토양은 우리의 작업을 기계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황량한 대지 위에 우리의 터전을 마련하고 우리의 우리스러운 정신을 영위하기 위해선 모든 이미 이루어진 왕궁, 성주, 문명탑 등의 쏘아 붓는 습속적인 화살발을 벗어나 우리의 어제까지의 의상, 선입견, 인습을 훌훌히 벗어던진 새빨간 알몸으로 돌아와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27)</sup>

그렇다면 파국을 눈앞에 둔 인류문명을 과연 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신동

25) 같은 글, 366쪽.

26) 무인도에 납치된 중학생들이 벌이는 생존게임을 그린 일본영화.

27) 신동엽, 앞의 글, 363쪽.

업에 따르면 지금의 문명을 개선하거나 혹은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절대적 니힐리즘의 의지에 따라 기존의 문명과 철저히 단절함으로써 오직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길뿐이다. 그것은 삶(대지)에 밀착한 완전히 새로운 수목(문명)을 가꾸는 일이다.

새로운 문명의 창조는 차수성 세계의 인간인 맹목기능자(盲目技能者)들, 혹은 신동엽의 표현대로 “행복한 갑충(甲蟲)”<sup>28)</sup>들에게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니체(F. Nietzsche)식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이미 왜소화가 극단으로 치달은 ‘최후의 인간(the Letzte Mensch)’<sup>29)</sup>인 탓이다. 대신 기존의 인습과 습속(ethos)을 모조리 파괴하고 벗어던짐으로써 “새빨간 알몸”으로 돌아와 있을 수 있는 자, 또는 분지와 사상의 원리로 만들어진 문명의 파편들에 대한 “방대한 종합과 발췌”<sup>30)</sup>가 가능한 자의 출현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처럼 파괴하는 자이자 동시에 창조(생산)하는 자<sup>31)</sup>를 가리켜 신동엽은 ‘종합인(綜合人)’ 또는 ‘전경인(全耕人)’이라 부른다. 그에 따르면 전경인이란 “밭 갈고 길쌈하고 아들 딸 낳고, 육체의 중량에 합당한 양의 발인, 세계의 철인적·시인적·종합적 인식, 온전한 대지에의 향수적 귀의, 이러한 실천생활의 통일을 조화적으로 이루었던”<sup>32)</sup> 자들이다.

이들을 통해 비로소 인류의 가을이, 곧 귀수성의 세계가 열릴 것이며, 그들이 바로 “원수성세계 속의 씨알”<sup>33)</sup>이 될 것이라고 신동엽은 주장한다. 일종의 메시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관념에 따라 신동엽은 인류사에서 극소수의 전경인이 출현한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바로 예수, 부처, 노자

---

28) 같은 글, 362쪽.

29)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이 대지는 작아졌으며 그 위로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최후의 인간이 뛰어다니고 있다. 이 종족은 벼룩과도 같아서 근절되지 않는다. 최후의 인간이 가장 오래 산다.”(프리드리히 니체,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00, 24쪽.)

30) 신동엽, 앞의 글, 366쪽.

31) 굳이 니체의 표현을 빌자면 ‘위버멘쉬(Übermensch)’가 되겠다.

32) 신동엽, 앞의 글, 370쪽.

33) 같은 글, 373쪽.

등이 그들이다. “세계정신의 원초적이며 종말적인 인식 위에 개안했던 그들은 그 정신을 우주와 세계와 인생에게 발산하고 돌아간 위대한 대지의 철인이요, 시인들이었다.”<sup>34)</sup> 따라서 그들이 남긴 메시지(저술)는 ‘정치·예술·종교’의 거대한 종합 양식인 인류의 서사시라는 것이다.

### Ⅲ. 내파(內破) 또는 정지(停止)의 상상력

지금껏 「시인정신론」을 시론이기보다는 문명론의 형태로 읽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신동엽의 인류문명에 대한 묵시록적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러한 전망을 전제로 작품 『금강』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살필 차례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금강』의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두 개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물음은 『금강』에 등장하는 ‘신하늬’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운 작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이다. 이어 두 번째 물음은 『금강』의 서사 진행에서 거멸못 노릇을 하는 ‘영원(永遠)의 하늘’이라는 시어 혹은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다.

이 두 물음에 대한 나름의 해답이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들이 『금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금강』의 가공인물인 ‘신하늬’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엇갈린다. 우선 이 인물이 작가의 얕은 역사의식을 증명하는 어색한 존재<sup>35)</sup>라는 평가가 있다. 심지어 『금강』을 완전한 한국적 체념주의의 발현이라고 전제한 후 이 작품의 실패는 곧 인물 ‘신하늬’의 실패<sup>36)</sup>라는 극언까지 등장한다.

34) 같은 글, 370쪽.

35) 김우창, 앞의 글, 237쪽.

그런가 하면 계급적·민중적 각성을 통해 구체성을 획득한 인물<sup>37)</sup>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또한 작가의 사적인 감정에 따라 설정된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이고 문제적인 개인의 전형을 산출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sup>38)</sup>라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금강』이 지닌 의미망이나 서사구조 혹은 탈장르적 성향<sup>39)</sup> 등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다음과 같은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 듯하다.

작품에서 하늬의 역할은 중개자 혹은 관계자이다. 이 작품의 특징으로 이야기되는 역사와 허구, 그리고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 실존 인물과 가공인물, 작품에 개입된 작가 등 다양하게 얹힌 구조에서 하늬는 허브(hub)의 역할을 한다.(…)

(…) 하늬가 작품에서 구축하는 허구적 가치는, 실존 인물에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인물이 안고 있는 의미의 화석화, 즉 변형과 확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점에서 하늬는 실존했던 등장인물들과 동일한 선에 서게 된다. 또한 작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때로는 작가의 목소리를 직접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작가와 동일시되기도 한다.<sup>40)</sup>

역사와 허구, 실존인물과 가공인물, 시적화자와 작가, 심지어 과거와 현재

36) 김주연, 앞의 글, 267쪽.

37) 최유찬, 「『금강』의 서술양식과 역사의식」, 『민족시인 신동엽』(구중서·강형철 편), 293쪽.

38) 이엽섭, 앞의 논문, 180쪽.

39) 『금강』이 지닌 탈장르적 성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주목에 값한다. “금강에 내재된 다층적 구조는 문학적 위계를 형성하는 근거로도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장르적 실천을 통해 문학이 지닌 궁극적 가치와 신념을 변주하는 신동엽식의 실천적 태도를 환기한다. 신동엽의 시세계는 단형 서정시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지니는 물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적 경향을 지닌다. 데뷔작으로부터 나타나는 산문적 경향과 장시적 특질은 단적인 예라 하겠다. 또한 신동엽은 시극과 오페레타의 제작 등에도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시적 진술의 어조 역시 다양한 장르적 실천 의지와 연관된다. 진술의 효과에 대한 특별한 주목이 기존의 서정시 형식을 넘어서는 탈장르적 실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남기택, 앞의 논문, 62쪽.)

40) 지현배, 「신동엽의 『금강』에 나타난 서사구조와 작가의식-동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436~437쪽.

그리고 미래를 서로 연결 짓게 함으로써 하나의 텍스트 안에 공존하게 하는 중심으로서 신하늬를 허브(hub) 기능을 하는 문학적 장치로 해석했다는 것은 타견이다. 『금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공인물 신하늬의 특수하고도 복합적인 지위에 대한 각별한 주목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데 인물 ‘신하늬’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그 작명(作名)의 내력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꽤 의아한 일이다. 그 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인정신론」을 다시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글에서 ‘하늬바람’이라는 용어가 두 차례 등장한다는 점이다. 확인 차원에서 그 대목을 옮겨본다.

① 그래서 지금은 **하늬바람**을 눈앞에 둔 변절기 아니면 이미 가랑잎 물들기 시작한 이른 가을철, 우리들의 발언은 천 만길 대지에도 쏟아져 돌아가기 위한 미미한 몸부림인지도 모른다.(강조-인용자)<sup>41)</sup>

②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다. 긴긴 여름 동안 허공 속으로 푸르게 성장하기만 한다. 그러나 이따금 그 세계 속에서 예외를 발견한다. 세상이 모두 푸르기만한 무성한 여름날 한 송이의 꽃이 빠알강게 피었다 쏟아져 간 여름날의 코스모스를 보고 초록 동산의 동료 나무들은 웃었을 것이다. 가을이 와 **하늬바람**이 불면 자기들도 자기 후손들을 시켜 언젠가 여름날 호올로 피었다 쏟아져 간 그 코스모스와 똑같이 발화해야 할 것이다.(강조-인용자)<sup>42)</sup>

참고로 하늬바람이란 농부나 뱃사람들이 ‘서풍’을 부르는 순 우리말이다. 이때 ‘하늬’란 뱃사람의 말로 서쪽을 뜻한다. 따라서 하늬바람은 맑은 날 서쪽에 부는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으로 습하고 무더운 ‘뒤패(동남풍)’에 상대되는 바람이다.<sup>43)</sup> 인용문 ①은 신동엽이 글의 모두에 <원수성-차수성-귀수

41) 신동엽, 앞의 글, 364쪽.

42) 같은 글, 370쪽.

성>이라는 인류사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리고 인용문 ②는 인류사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존재했던, 즉 예수, 부처, 노자와 같은 종합인 또는 전경인의 이미지를 가을꽃인 코스모스에 비유하면서 언급한 것이다.

결국 텍스트의 허브 노릇을 할 인물의 이름을 신동엽이 하너로 짓고, 게다가 작가 자신의 성을 붙였다는 사실은 결코 예사로운 게 아니다. 신동엽은 신하너라는 인물을 통해 인류의 가을을, 곧 귀수성의 세계를 예비하고 맞이하는 자를 그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하너라는 이름은 인류사에 존재했던 극히 예외적인 전경인에 대한 신동엽식의 오마주(hommage)였던 셈이다. 더 나아가 거기에 자신의 성을 붙였다는 것은 그러한 전경인의 반열에 오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과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44)</sup>

한갓, 노른자와 흰자이던 / 액체가 자기 생명을 의식하고 / 다습게 조직하며, / 기구(祈求)하며, / 내일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 달걀 속의 세상은 / 평화가 깨지고 / 불안 초조해진다. // 내부의 / 살의 / 성장에 / 밀려나 / 깨어지는 달걀껍질은 / 내부의 / 병아리새끼 / 저주하리라, / 반역자, 라고. // 자각된 농민들의 / 성장으로 / 달걀껍질은 / 균열되기 시작한걸까.<sup>45)</sup>

43) 박남일,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 말 풀이사전』, 서해문집, 2011.의 ‘하너바람’ 부분 참조.

44) 이러한 욕망은 당대의 소시민 또는 지식인과 신동엽 자신을 구별 짓고자 하는 우월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노자의 사상을 연상케 하는 다음 대목이다. “두 치 앞의 모이만을 보고 일평생 쫓아 다니는 닭의 정신을 가리켜 소원(小圓)이라 한다. 눈과 모이와의 두 치 간격을 직경으로 하여 한바퀴 돌려 그린 원이 그 닭의 정신의 크기이다. 문명에 관습되어 온 소위 현대식 지성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소시민들의 정신적 둥근 원은 고층건물과 고층건물 사이의 거리를, 숙소와 직장과 오락장과의 사이를 또는 필명과 인명과 개념과 개념과의 정신적 거리를 직경으로 하여 돌려 그린 원의 크기와 동일하다. 한 마디 이야기도 없이 한평생 길게 누워 졸다가 죽어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면, 나뭇잎에 고여 오른 이슬알이나 풍우에 밀려다니는 말 없는 모래알과 함께 그들의 정신적 환원의 크기란 부재(不在)이면서 최대재(最大在)인 우주환(宇宙環)의 기점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신동엽, 앞의 글, 364~365쪽.)

45) 신동엽, 『금강』, 앞의 책, 193~194쪽.



“세상의 / 어지러움은, 그 까닭이 / 외부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손짓 발짓  
은 흘러가는 물거품, / 우리의 内部가 더 문제입니다. / 알맹이가, / 속살이, /  
씨알이 싱싱하면 / 신진대사에 의해 / 외형은 변질됩니다.// 외부로부터 / 다스  
려 들어오려 하지 말고 / 우리들의 내부에 / 불을 지릅시다.<sup>46)</sup>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시인정신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급했듯 전경인은 파괴하는 자이자 동시에 창조(생산)하는 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금강』에는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알맹이의 사상’ 또는 내파(內破)의 상상력이라 부를 만한 시적 진술이 두 번 등장한다. 한 번은 작가의 생생한 욕성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신하늬가 의형제를 맺은 전봉준과 투쟁노선을 놓고 갈등하는 과정에서이다.

신동엽이, 혹은 신하늬의 입을 빌려 보여주고자 했던 내파의 상상력은 역사에 대한 도저한 nihil리즘과 문명에 대한 묵시록적 전망 속에서 이른바 ‘정지(停止)’의 상상력으로 귀결된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신동엽의 역사의식이 무시간적이어서 과거에 대한 낭만적 미화를 낳고 있다<sup>47)</sup>거나, 과거 회귀적인 순환적 시간관을 전제한다<sup>48)</sup>는 등의 견해로부터 가급적 비켜설 필요가 있다.

물론 신동엽의 『금강』이 그러한 혐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단적인 예로 작가의 분신이자 텍스트의 허브인 신하늬가 연인 ‘인진아’를 만나는 장면에서 “우스운 인연이군요 / 고구려의 밭, / 백제의 씨,”<sup>49)</sup>라고 운운했던 부분만을 놓고 보더라도 신동엽은 과거를 낭만화하고 미화하는 영락없는 상고주의자이다. 그러나 그러한 혐의를 해소하고도 남을만한 것이 작품에 술하게 등장하는 ‘하늘’의 이미지, 구체적으로는 ‘영원의 하늘’이라는 시어이다. 우선 다음의 시적 진술을 보도록 하자.

46) 같은 책, 203쪽.

47) 박상민, 앞의 논문, 118~119쪽.

48) 오문석, 앞의 논문, 13쪽.

49) 신동엽, 『금강』, 162쪽.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 1960년 4월 / 역사를 짓눌던, 검은 구름짱을 찢고 /  
영원(永遠)의 얼굴을 보았다. // 잠깐 빛났던, / 당신의 얼굴은 / 우리들의 깊은  
/ 가슴이었다. // 하늘 물 한아름 떠다, / 1919년 우리는 우리 얼굴 닦아놓았다.  
// 1894년쫘옴엔, / 돌에도 나무등걸에도 /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  
하늘, 잠깐 빛났던 당신은 금새 가리워졌지만 / 꽃들은 해마다 / 江山을 채웠  
다. / 태양과 추수와 연애의 노동.<sup>50)</sup>

영원의 모습을 한 하늘이 잠깐 빛났다 사라졌지만, 역사 속에서 세 번 출현한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60년 4·19 혁명 때이다. 성격을 달리한 역사적 사건들이 한자리에 호명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동엽의 역사 인식의 오류나 한계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영원의 하늘’이 잠깐 열렸던 경험”이지, “반봉건, 반외세와 반독재 투쟁 사이에,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민중의 자기해방운동의 표현인 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차이가 없었다.”<sup>51)</sup>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잠깐 빛났다가 이내 사라져 버린 ‘영원의 하늘’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하늘을 신동엽이 염두에 두었을 특정한 사회체나 공동체 혹은 유토피아와 연관 짓고, 이어 그것의 형태나 이념을 규정하는 일도 전혀 의미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하는 대신 신동엽의 『금강』을 묵시록적 전망을 함축한 문명론의 맥락에서 바라보기 위해 위의 진술을 발터 벤야민(W. Benjamin)의 「역사철학테제」의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언급과 겹쳐 읽어보고자 한다.

과거의 진정한 상(像)은 획 스쳐 지나가 버린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인식되어지는 찰나에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이 다시 사라져 버리는, 마치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상으로서만 과거를 붙잡을 수 있을 뿐이다. (...) 왜냐하면 현재에 의해 인식되지 못했던 모든 과거의 상은 언제든지 현재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sup>52)</sup>

50) 신동엽, 『금강』, 123~124쪽.

51) 김종철, 앞의 논문, 111쪽.

벤야민은 과거의 이미지를 ‘섬광’으로 묘사한다. 그에게 과거를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쳐지나가는 어떤 기억을 붙잡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sup>53)</sup> 역사란 “동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현재시간(Jetztzeit)’에 의해 충만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때 혁명은 언제나 역사의 자유로운 하늘에서 “과거를 향해 내딛는 호랑이의 도약”<sup>54)</sup>으로서 출현하게 된다.

주지하듯 벤야민은 역사주의와 역사적 유물론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역사주의가 “과거의 ‘영원한’ 이미지”에 집착하는 반면, 역사적 유물론은 “일회적인 과거와의 유일무이한 경험” 속에서 과거를 “역사의 지속성을 폭파”<sup>55)</sup>시키는 힘으로서 인식한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유물론자는 “사건의 메시아적 정지의 표식, 달리 말해 억압된 과거를 위한 투쟁에서 나타나는 혁명적 기회의 신호를 인식”하는 자 그리고 “동질적이고 공허한 역사의 진행 과정을 폭파시켜 그로부터 하나의 특정한 시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과거를 인지”<sup>56)</sup>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역사주의가 집착하는 역사란 본질적으로 “야만의 기록”이고 역사의 “새로운 지배자는 그들 이전에 승리했었던 모든 자들의 상속자”<sup>57)</sup>로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頂上을 향해 / 벼슬길로 / 기어오른다, // 형제의 등을 밟고 / 친구의 목을 부러뜨리고 / 제 자신의 낮짝도 / 쥐어 뜯어가며 // 벼슬 높은 / 頂上으로 / 정상으로, // 여기저기 / 나 있는 / 달 표면의 / 분화구 자국 같은 / 흙구 곁으로 기어 올랐다. // **오늘, / 얼마나 달라졌는가, // 변한 것은 무엇인가 / 四大門** 안팎, 머리 조아리며 / 늘어섰던 韓屋 대신 / 그 자리 헐리고 지금은 / 십이층 이십층의

52)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0, 345쪽.

53) 같은 책, 346.쪽.

54) 같은 책, 353쪽.

55) 같은 책, 354쪽.

56) 같은 책, 354~355쪽.

57) 같은 책, 347쪽.

빌딩 / 서 있다는 것, // 진고개 청개천, 이쪽저쪽 /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람들  
의 옷맵시가, 갯에서 넥타이로 / 변모했다는 것밖에, // 무엇이 달라졌는가, /  
지금도 우물터 / 피기를 샘솟는 / 중앙都市를 살찌고 / 농촌은 누우렇게 시들  
어가고 있다. // 우리들의 움직이는 발 / 한 발자국 // 움직이는 손 / 한 팔짓이  
// 누구의 등을 안 파고 / 견딜 수 있단 말인가, // 잡초만 무성하는 / 惡의 발, /  
유린과 착취가 / 무한대로 자유로운 / 버려진 땅, // 불성실한 시대에 살면서 /  
우리들은, / 비지 먹은 돼지처럼 / 눈은 반쯤 감고, 오늘을 / 맹물 속에서 떠 산  
다. // 도둑질 / 약탈, 정권만능 / 노동착취, / 부정이 분수없이 자유로운 / 버려  
진 시대(강조-인용자)<sup>58)</sup>

끝나지 않았다 / 人間的 野蠻은 끝나지 않았다. // 우리는 오늘 / 사람을, 총  
으로 / 쏘고 있지 않은가 // 아프리카에서, / 아시아半島에서, / 그리고 나뭇잎  
썩트는 / 파스한 봄날(244) / 교수대에서, (강조-인용자)<sup>59)</sup>

인간들의 차림새만 달라졌을 뿐,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유린과 착취 그리  
고 약탈과 부정의 땅에서 그리고 윤패된 불성실한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시금 신동엽의 언급을 떠올려보자.  
“유사 이후의 문명의 역사 전체가 다름 아닌 인종계의 여름철 즉 차수성 세  
계의 연륜에 속한다.”

따라서 야만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부르짖는 신동엽을 벤야민적  
의미의 역사적 유물론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곧 “사건들의 계기를 마치  
염주를 하나하나 세듯 차례차례로 이야기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대신 그가  
살고 있는 자신의 시대가 지나간 어느 특정한 시대와 관련을 맺게 되는 상  
황의 배치로 파악”<sup>60)</sup>하는 자로서 말이다.

영원의 하늘이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진정한 상이다. 그가 호명  
한 역사적 사건들, 곧 갑오농민전쟁, 3·1운동, 4·19혁명은 피지배계급에 대

58) 신동엽, 『금강』, 182~183쪽.

59) 같은 책, 245쪽.

60) 발터 벤야민, 앞의 책, 355쪽.

한 착취와 유린으로 점철된 문명사(차수성 세계)의 내파 또는 그 흐름(연속성)의 정지를 강렬하게 환기하는 특이점이자 사건(귀수성의 세계)으로서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1984년 3월 / 우리는 / 우리의, 가슴 처음 / 만져보고, 그 힘에 / 놀라, / 몸뚱이, 알맹이채 발라, / 내던졌느니라. / 많은 피 흘렸느니라. // 1919년 3월 / 우리는 / 우리 가슴 성장하고 있음 증명하기 위하여 / 팔을 걷고, 얼굴 / 닦아보았느니라. / 덜 많은 피 흘렸느니라. // 1960년 4월 / 우리는 / 우리 넘치는 가슴덩이 흔들여 / 우리의 역사밭 / 쟁취했느니라. / 적은 피 보았느니라. / 왜였을까, 그리고 놓쳤느니라.// 그러나 / 이제 오리라, 갈고 다듬은 우리들의 / 푸담한 슬기와 자비가 /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 우리 세상 쟁취해서 / 반도 하늘 높이 나무길 평화, / 낙지발에 빼앗김 없이, // 우리 사랑밭에 / 우리 두렛마을 심을, 아 / 찬란한 혁명의 날은 / 오리라, // 겨울 속에서 / 봄이 싹트듯 / 우리 마음 속에서 / 연정이 잉태되듯 / 조국의 가슴마다에서, / 혁명, 분수 뿜을 날은 / 오리라.<sup>61)</sup>

신동엽은 이 역사적 사건들을 동질적이고 공허한 역사의 진행과정을 폭파하고 정지시키는 혁명적 기회의 신호로 읽었다. 그중 가장 강렬했던 사건이 가장 많은 피를 흘렸던 갑오농민전쟁이었다. 신동엽은 이 농민전쟁을 노래함으로써 야만의 시대를 넘어 인류문명의 가을을 예비하고자 했다. 잠깐 빛났다 사라져버렸지만(“놓쳤느니라”) ‘영원의 하늘’이 언젠가 자유로운 역사의 하늘에서 다시 출현할 것(“혁명, 분수 뿜을 날”)이라는 실낱같은 구원의 전망이 묵시록적 전망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셈이다.

#### IV. 나오며

지금까지 이 글은 신동엽의 장편서사시 『금강』을 그의 시론 「시인정신론」

---

61) 신동엽, 앞의 책, 302쪽.

과의 연관 속에서 읽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시인정신론」을 시론이기보다는 목시록적 전망이 내포된 문명론의 형태로 재맥락화했다. 이어 그러한 목시록적 전망이 『금강』의 중심 주제인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 탐색했다.

그 결과 『금강』에서 갑오농민전쟁, 일제하 3·1운동, 이승만 독재하의 4·19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유린으로 점철된 문명사의 내파와 정지를 강렬하게 환기하는 특이점과 같은 것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벤야민의 논의에 기대어 『금강』이 역사에 대한 낭만적 과거회귀의 이념이나 탈역사성의 관념과는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글은 『금강』에 대한 해석의 새로움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시론적(試論的)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한 한계 또한 없지 않다. 특히나 필자는 『금강』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필자가 제기한 두 개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식으로 논의를 한정했다. 물론 이 글이 시론적 성격을 벗고, 나아가 주장의 논리적 객관성과 정합성을 얻기 위해서는 『금강』 텍스트 자체에 대한 치밀하고도 총체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훗날의 과제로 남겨둔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강상대, 「서사시 『금강』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7호, 한국콘텐츠학회, 2006.
- 김경복, 「신동엽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64집, 한국문화회, 2013.
- 김우창, 「신동엽의 『금강』에 대하여」, 『민족시인 신동엽』(구중서·강형철 편), 소명출판, 1999. 237쪽.
- 김종철, 「신동엽론-민족·민중시와 도가적 상상력」, 『창작과 비평』 63호, 창작과 비평사, 1989, 102쪽, 111쪽.
- 김주연, 「시에서의 참여 문제-신동엽의 『금강』을 중심으로」, 『민족시인 신동엽』(구중서·강형철 편), 소명출판, 1999. 267쪽.
- 김홍진, 「『금강』의 서사양식 수용과 서술기법」, 『한국문예창작』 제8권 제3호, 한국문예창학회, 2009.
- 김화선, 「탈주와 회구의 상상력-신동엽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1999. 55쪽, 61쪽.
- 남기택, 「신동엽 시와 『금강』의 충위」, 『대학교양교육연구』 제2권 제1호, 배재대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17. 62쪽.
- 박남일,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 말 풀이사전』, 서해문집, 2011.
- 박상민, 「박경리 『토지』와 신동엽 『금강』의 동학 담론」, 『동학학보』 44권, 동학학회, 2017. 118~119쪽.
- 박정근, 「신동엽 시에 나타난 ‘탈주’의 의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6권 1호, 순천향대 인문학연구소, 2017.
- 손민달, 「사회생태학의 관점으로 본 신동엽의 시-『금강』을 중심으로」, 『문화과 환경』 제15권 제2호, 문화과환경학회, 2016.
- 송병선, 「민중서사시의 미학과 침묵의 언어-『금강』과 『우리 모두의 노래』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9권, 세계문학비교학회, 2003.
- 신동엽,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사, 1985. 124쪽, 162쪽, 193~195쪽, 203쪽, 302쪽, 361~368쪽, 370쪽, 373쪽, 379쪽.
- 오문석, 「신동엽의 시론 연구」, 『인문학연구』 48권, 조선대 인문학연구원, 2014.

10쪽, 13쪽.

- 이나영, 「신동엽 서사시의 성취와 의의-『금강』의 서정성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74권,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 이미옥, 「신동엽과 장허의 ‘서사시’를 통한 ‘저항성’ 비교 연구-『금강』과 『태양과 그의 반사광선』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42집, 동북아문화연구소, 2015.
- 이영섭,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 연구-『금강』의 역사의식과 탈역사성』, 『현대문학의연구』 5권, 한국문학연구학회, 1995. 180쪽.
- 이정석, 「한국문학과 재일조선인문학, 그 친연성과 거리-신동엽의 『금강』과 허남기의 『화승총의 노래』의 대비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41권, 비교문학학회, 2007.
- 이주동·장순란, 「현대독일문학의 경향과 특징」, 『서강인문논총』 제22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07. 271쪽.
- 이혜미, 「『금강』의 에로스적 상상력 연구」, 『한국문화기술』 14권,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2.
- 임현준,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에 나타난 모성담론」, 『한국문화기술』 12권,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1.
- 지현배, 「동학의 코드와 한국학적 가치-신동엽과 권정생 작품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8권, 동학학회, 2018.
- 지현배, 「신동엽의 『금강』에 나타난 서사구조와 작가의식-동학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28권, 동학학회, 2013. 436~437쪽.
- 최도식, 「신동엽의 『금강』에 나타난 공동체 연구-동학농민운동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41권, 동학학회, 2016.
- 최유찬, 「『금강』의 서술양식과 역사의식」, 『민족시인 신동엽』(구중서·강형철 편), 소명출판, 1999. 293쪽.
- 한상철, 「미적 근대의 복원-신동엽의 『금강』론」, 『문예시학』 10권, 문예시학회, 1999. 202쪽.
- 한상철, 「신동엽의 『금강』에 나타난 자연표상과 아나키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202쪽.
- 홍용희, 「귀수성과 동학혁명운동의 현재적 가능성-신동엽의 시론과 서사시 『금강』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43호, 한국시학회, 2015.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0. 345~347쪽, 353~355쪽.

프리드리히 니체,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00. 24쪽.

Abstract

## The world of 'Gwisuseong(歸數性)' rising from history

- Shin, Dong-yeop's 『Geumgang』 Reading -

Jeong, Myung-jung

This essay is a reading of Shin Dong - yup 's long epic poem 『Geumgang(금강)』 (1967) in relation to his poetry, 「Poet Mentalism (시인정신론)」. I have read 「Poet Mentalism」 in the form of Civilization-Criticism, which implies apocalypse prospect rather than poetry. Then, in such apocalyptic prospects, I searched how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Peasant War(1894), which is the central theme of 『Geumgang』, are becoming meaningful.

It has been confirmed that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Peasant War, the March 1 Movement, and the 4 · 19 Revolution in the 『Geumgang』 are the same as the singularities that evoke the implosion and suspension of civilization. In addition, it shows that the 『Geumgang』 is far from the idea of a romantic past return to history or the idea of de-historicity.

**keywords:**

Shin Dong - yup, Poet Mentalism, Geumgang, Apocalypse, Peasant War